

“울돌목 회오리 바다 체험해보세요”

스카이워크·해상케이블카 개통...명소 기대 우수영 인문학 하우스·역사 관광촌 등 연계

해남 우수영 울돌목의 회오리바다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명소가 탄생했다. 해남군은 지난 3일부터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를 개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살아있는 우수영 관광지의 진면목을 선보이고 있다. 총길이 110m의 울돌목 스카이워크는 울돌목의 거센 물살위를 직접 걸어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바다쪽으로 직선거리 32m까지 돌출되고, 바닥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스릴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유리바닥 아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류가 빠르다는 울돌목의 물살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체험코스. 개통과 동시에 울돌목의 새로운 명소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수영 관광지 입장시 요금(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등)을 내면 별도 입장료는 없다. 총 길이 960m 울돌목 해협을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도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타워를 오가는 노선으로 10인승 곤도라 26대가 투입된다.

(좌)울돌목해상케이블카에서 전역 민간 투자로, 총 36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의 대승을 거두었던 역사의 현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일품이다. 특히 13대의 케이블카는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으로, 울돌목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짜릿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명량해상케이블카는 해남 승차장에서 출발해 진도 망금산 승차장에 정차한 후 다시 해남으로 순환 운행한다. 탑승요금은 대·소인을 구분해 일반캐빈 1만 1,000~1만 3,000원, 크리스탈 캐빈 1만 5,000~1만 7,000원이다. 특히 해남군은 스카이워크와 케이블카의 조영시설과 야간 운행 등으로 빛의 관광을 통해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쌍둥이 다리로 유명한 진도대교와 울돌목의 환상적인 경관이 어우러진 야간관광의 새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가 서남권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



해남군은 지난 3일부터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를 개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살아있는 우수영 관광지의 진면목을 선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정착하기 위해 임시상가 건립과 푸드트럭 등을 배치하고, 주차장과 도로 표지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관협의회를 구성, 진철한 손님맞이를 위한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이와함께 법정스님 생가에 조성되는 해남 인문학하우스 건립 사업이 올 하반기, 먹거리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역사관광촌 조성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명실상부 해남 우수영이 서남권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스카이워크와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거센 물살로 유명한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우수영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사업과 인문학 하우스 조성 등 우수영관광개발사업과 맞물려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진도개 식용 논란 사실 아니다”

진도군, 10월 말까지 농장 실태 일제조사

최근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식용개 논란과 관련 진도군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일부 동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도개 식용개 논란은 진도군 공무원이 현지 확인 결과 농장주가 반려견으로 기르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농장을 2차례 방문한 결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등록돼 보호되고 있는 진도개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지속적으로 진도개 등 반려동물 농장 사육실태를 일제 조사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농장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진도개축산과에서는 9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000여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도개 사육환경 특별 조

사팀’을 구성해 ▲동물등록제 등록 ▲동물관리상태 ▲사육환경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67년부터 진도개보호지구로 지정된 진도군은 진도개 혈통 보존을 위해 진도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의거해 제한하고 있다. 군은 특별 조사 기간 동안 일부 사육 농가가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등록제 등록, 사육환경, 동물관리 상태, 사육견 현황 등을 조사하고, 미등록견 사육 농장 적발 시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해 관의 반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사육환경이 불량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보완 요구를 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패널리터를 부과할 방침이다. /진도=박병태 기자

해남,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상반기 준공

해남군이 생활체육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는 파크골프의 대중화를 위한 전남도 파크골프장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산이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산이면 초송리 산이중학교 인근 군유지 1만 3,250㎡에 18홀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이달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 내 파크골프장은 삼산면 봉학리에 9홀 규모의 1개소만 소재해 있는 실정으로, 이번 산이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늘어나는 파크골프 이용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치가 면소재지 중학교 인근이어서 산이면민은 물론 화원, 황산, 마산 등 인근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체육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 사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크골프는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적정 활동량을 보충할 수 있는 운동으로, 기존 골프의 규모만 축소하면서도 흥미있게 운동할 수 있어 노인층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동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신안 압해읍 분매 1리 마을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선편포

신안군이 압해읍 분매 1리 마을을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마을’로 선편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분매 1리 마을회관에서 박우량 군수와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안전한 농작업 작업환경 조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선편식을 가졌다.

이날 동시대 정화식 교수가 전문 컨설턴트로 참여해 마을의 농작업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 조치 방법을 지도했다.

군은 농작업 전문 컨설턴트와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농약보관함과 야간 농작업등, 예초기 보호구 등 농작업 환경개선 물품을 지원했다.

또 농작업 개인 보호구를 보급해 농약과 자외선 등 농작업의 위험 요소를 차단



신안군은 최근 분매 1리 마을회관에서 박우량군수와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안전한 농작업 작업환경 조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선편식을 가졌다. /신안군 제공

하고 농업인들의 건강장해도 개선했다. 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회관에는 농작업 안전수칙 간판과 폐농약병 수거함을 비치해 농작업 안전마을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우량 군수는 “농작업 안전마을 선편

로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농작업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농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

방 생활화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조치와 통제활동을 통한 재해 감감 및 사고예방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신안=이주열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신안새마을부녀회,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신안새마을부녀회가 최근 전사대교 입구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도농 직거래 장터를 열기 어려워 지역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수 농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직거래장터에서는 고춧가루와 참기

름, 깨, 새우젓, 김, 천일염 등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관광객의 소비형태에 맞춰 소포장으로 판매한다. 김영자 새마을부녀회장은 “장터 운영을 통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판매 수익금 일부를 저소득층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기자



강진경찰, 성평등 직무역량 향상 교육

강진경찰서는 최근 박승기 서장, 실·과장 및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강진서 관리자 성평등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김항심 인소울 성장교육 연구소대표를 초청, “좋은 리더를 위한 5R 성평등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

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조직내 잔존하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개선할 강조했다. 박승기 서장은 “높은 도덕성을 갖춘 성평등한 경찰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음주운전·성비위가 없는 경찰조직을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영암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영암경찰서는 최근 영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영암군청, 영암초, 녹색어머니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향상,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준수 등을 홍보하고, 홍보용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시설물 점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녹색어머니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감담회도 진행했다. 서태규 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스쿨존 내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